- 농축산물 선진 생산기법 및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순 천 시 의 회

공무국외출장 계획

1. 연수개요

○ 연수목적

세계경제 흐름이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계로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어, 농축산물 생산 기법 및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가 견학을 통한 우수 정책을 우리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코자 함.

○ 연수기간 : 2015. 1. 15(목) ~ 1. 24(토) / 8박 10일

○ 연 수 국 : 호주, 뉴질랜드

○ 연수대상 : 10명(의원 7, 직원 3)

2. 기대효과

○ 선진 농·축산물 생산기법 도입으로 도시농업 육성을 통한 농업의 가치 확산 기회를 마련, 순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

○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활력있고 쾌적한 농촌을 조성, 의욕이 넘치는 창조적인 농업인 육성 및 명품 농산물 생산 지원 방안 기대

○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을 연계한 농촌관광 발전 방향을 탐구하여 농촌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활력 기틀 마련

2. 연수일정

일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일정	주요내용
1일 차 1. 15. (목)	순천 (인천)	뉴질랜드 (오클랜드)	○순천 09:00 출발 예정 ○인천국제공항 17:00 출발	▪비행기 소요시간 (약 11시간 10분)
2일 차 1. 16. (금)	뉴질랜드 (오클랜드)	뉴질랜드 (로토루아)	○오클랜드 국제공항 도착 ○와이토모 석회동굴 견학 ○**협동조합 농가 방문**	▪자연생태 탐방 및 주요 농산물 생산시설 견학
3일 차 1. 17. (토)	뉴질랜드 (로토루아)	뉴질랜드 (오클랜드)	○레드우드 수목원 방문 ○마오리 민속마을 탐방	▪민속마을 및 팜투어 비교견학
4일 차 1. 18. (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뉴질랜드 (퀸스타운)	○탄광촌 애로우타운 견학 ○와카티푸호수 등 방문	▪오클랜드-퀸스타운 비행기 이동
5일 차 1. 19. (월)	뉴질랜드 (퀸스타운)	뉴질랜드 (퀸스타운)	○**퀸스타운 시의회 및 환경보호 기관 방문** ○피요르드랜드 국립공원 견학	▪환경보호 관리실태 등 ▪자연생태 관광 프로그램 비교 등
6일 차 1. 20. (화)	뉴질랜드 (퀸스타운)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마운트쿡 국립공원 탐방 - 푸카키호수 등 견학 ○크라이스트처치 이동	▪소요시간 3시간 30분
7일 차 1. 21. (수)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호주 (시드니)	○**크라이스트처치 의회방문** ○크라이스트처치 시내 탐방 ○호주 시드니 이동 (비행기)	▪시의회 운영 실태 등 ▪도심 관광자원 활용 실태 및 프로그램 견학
8일 차 1. 22. (목)	호주 (시드니)	호주 (시드니)	○**파라마타 시의회 방문**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탐방	▪국립공원 관리실태 및 활성화 방안 견학
9일 차 1. 23. (금)	호주 (시드니)	호주 (시드니)	○시드니 동부지역 탐방 - 더들리페이지 등 ○시드니 항만 탐방	▪시드니 관광정책 등 비교견학
10일 차 1. 24. (토)	호주 (시드니)	순천 (인천)	○시드니 출발 09:00 ○인천국제공항 도착 17:40	▪비행기 소요시간 (약 8시간)

3. 주요방문지 사전정보

Ⅰ. 호주(Australia)

국가 기본 정보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지도

○ 국가형태 : 입헌군주제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양원제)
○ 수　　도 : 캔버라(Canberra)
○ 면　　적 : 7,686,850km^2
(※대한민국의 약 78배)
○ 인　　구 : 약 2150만명
○ 사용언어 : 영어
○ 시　　차 : + 1시간
○ 인　　종 : 백인 약 95%, 원주민 약 2%, 아시아 약 1.3%, 기타 약 1.5%
○ 종　　교 : 오스트레일리아 성공회와 로마 카톨릭
○ 화폐단위 : Australian Dollar, 1호주달러(A$) = U$1.013.40 (2013.9.24.)
○ 1인당 GDP('12) : 69,798미불
○ 주요 국경일 : 1. 26.(Australia Day)
○ 날씨와 기온 : 천혜의 자연 환경과 온난한 기후
- 호주는 국토가 넓기 때문에 열대기후부터 온대기후까지 지역에 따라 기후 차이가 나지만 시드니, 캔버라, 멜번, 브리즈번, 퍼스, 애들레이드 등 대부분의 대도시 기후는 생활하기 적합한 기후임. 하지만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대륙으로 대륙 중앙부는 사막지대임.
- 여름은 기온이 높아도 다윈 등 노던테러토리 지역 외에는 습도가 낮기 때문에 지낼만 하며, 자외선이 매우 강하여 선글라스, 선텐로션(Sun block)과 모자는 필수임
- 겨울은 대부분의 지역이 낮 동안에는 영상의 기온으로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며 산간지역이나 캔버라와 같은 고지대 도시는 일교차가 심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호주 주요 방문 도시

1) 시드니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시드니 대도시권은 서쪽 블루산맥, 북쪽 호크스베리강(江), 남쪽 보터니만(灣)까지 뻗어 있으며, 전국 인구의 약 1/4이 몰려 있는 호주 최대의 도시이다. 중생대의 사암층의 대지와, 서쪽 내륙에는 이암질(泥岩質)의 파랑상(波浪狀)의 저지를 사이에 두고 해발고도 1,000m 전후의 블루산맥이 남북으로 뻗어 있다. 이 대지의 계곡은 하류지역에서 익곡(溺谷)을 이루어 포트잭슨만(灣), 보터니만 등을 이룬다.

포트잭슨만의 남안 일대는 세계 3대 미항(美港)의 하나인 시드니항의 항역(港域)이 되어 있다. 이 항구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무역액의 1/4, 뉴사우스웨일스주 무역액의 3/4을 취급한다.

온화한 기후로도 유명하며, 연간 평균기온은 17.6℃, 가장 더운 달이 21.9℃, 가장 추운 달이 12.3℃로 연교차가 적다. 연평균강수량은 1,205mm이며, 1년 내내 강수량이 고르다. 1788년 1월 26일, 보터니만으로부터 포트잭슨에 들어온 총독 A.필립은 유형수(流刑囚) 770명, 군인 250명을 데리고 이곳에서 최초의 식민지 건설을 개시하였다.

시드니라는 이름은 당시 영국의 각료였던 시드니경(卿)의 이름을 딴 것이다. 그 후 시드니는 오스트레일리아 개발의 중심지로서 발전하였다. 천연의 양항(良港)이라는 점과 육상교통로의 요지라는 사실도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1842년 시제(市制)가 시행되었고, 1851년 부근의 배더스트에서 금이 발견된 후로 인구가 급증하였다.

시드니는 또한 이 나라 최대의 상공업도시로, 섬유 ·제분 ·정당(精糖) ·피혁 ·기계 ·화학 ·자동차 ·조선 ·정유(精油) ·제재(製材) ·제지 ·차량 ·농기구 등의 공업이 활발하다. 공업지대는 시의 남부와 서쪽 교외 일대에 분포한다. 관청 ·금융기관 ·회사 사무실 ·백화점 ·고급상점이 있는 도심 바깥쪽에는 조용한 주택지가 자리잡고 있는데 특히 포츠포인트 등이 최고급 주택지로 알려져 있다.

시드니는 문화와 교육의 중심이기도 하며, 시드니대학(1850년 창립) ·뉴사우스웨일스대학 ·로마가톨릭 교회 ·성공회 교회 ·오스트레일리아 박물관 ·국립미술관 ·도서관 등이 있고, 오페라하우스도 1973년에 완성되었다. 또 시내에는 2개의 국립공원(300km^2)과 자연보호지 이외에 하이드파크 ·센테니얼파크 등의 공원 ·정원과 각종 경기장이 있다. 또한 포트잭슨만과 남쪽의 보터니만은 경치가 아름다운 관광지로 알려져 있다.

Ⅱ. 뉴질랜드(New Zealand)

■ 국가 기본 정보

○ 위 치 : 동경 174°, 남위41°

○ 수 도 : 웰링턴

○ 면 적 : 27만㎢

※ 한반도 면적의 1.2배

○ 언 어 : 영어, 마오리어

○ 인 구 : 443만명(북섬76%, 남섬24%)

○ GDP : 1,697억(미불)

○ 1인당GDP : 29,730미불

○ 인 종

- 유럽인(68%), 마오리 원주민(14%), 아시아계(9.2%), 남태평양인(6.9%) 등

○ 종 교 : 대부분 성공회, 기독교, 카톨릭(종교의 자유보장)

○ 날씨와 기온

- 해양성 기후(1월 평균 : 20℃, 7월 평균: 11℃)
- 급작스런 기후 변화
-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춥고, 북섬 중앙지역도 고산지형과 거대한 호수가 있어 온도가 낮음. 6월부터 9월간은 우기. 뉴질랜드는 바람이 강하여 우기에는 우산보다는 모자가 달린 방수옷을 착용하시는 것이 더 좋음

뉴질랜드 지도

■ 뉴질랜드 주요 방문 도시

1) 크라이스트처치

캔터베리 대평원을 배경으로 곡물·양모·농기구의 거래가 활발하고, 고무·식품 등의 공업도 발달되어 있다. 1850년 영국에서 건너온 이주자들이 외항(外港) 리틀턴에 거주하기 시작한 뒤 점차 도시로 발전하였다. 장대한 교회와 캔터베리대학교 및 박물관 등이 중후한 영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한편 시가지 중심부에 있는 해글리 공원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안에 크라이스트처치 식물원이 있다.

2) 트와이젤

매켄지 행정구(MackenzieDistrict)에 있다. 이전에는 농지였으며 1968년대에 어퍼 와이타키 수력발전 계획(Upper Waitaki Hydro electricity Scheme)의 일환으로 발전소에서 일하던 직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이 계획이 완료된 후 철거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1983년 거주민들이 반대하여 남아 있게 되었다. 현재는 서비스업과 관광업의 요지이다.

날씨가 맑고 건조하며 카약, 등산, 스키, 승마 트레킹, 하이킹 장소로 유명하다. 마운트쿡 국립공원과 관광객들이 매켄지 지방으로 여행을 시작하는 곳이며, 인근 루아타니화호(LakeRuataniwha)에서 항해, 수상스키를 즐길 수 있고 보트 경기가 열린다. 겨울에는 오하이 스키장과 라운드힐 스키장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다. 도시는 전체적으로 스칸디나비아 분위기로 꾸며졌으며 상점, 학교, 휴양 공원이 도심에 있다. 쿡산으로 가는 등산로가 많고, 주변의 강이나 호수에서 낚시를 할 수 있다.

3) 퀸스타운

퀸스타운(Queenstown)은 뉴질랜드 남섬 오타고 지방의 내륙, 와카티푸 호수 기슭에 위치한 도시이다. 주변의 산들에 둘러싸여 그 아름다움이 "빅토리아 여왕에 어울리는"라고 이름 붙여진 것에서 유래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휴양지이다.

1862년에 숏오버 강에서 골드가 발견 이후, 도시는 급속히 발전하고 인구도 수천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골드가 고갈되면서 인구는 수 백명으로 격감하고 만다. 현재는 고원의 피서지 같은 분위기로 다양한 종류의 활동 거점이 되고 있다. 여름에는 번지점프와 패러글라이딩, 골프, 호수에서 제트보트, 낚시 등을 즐길 수 있으며, 겨울에는 주변 코로넷 피크(Cornet Peak)와 리마커블스 같은 스키장에서 스키, 스노우보드, 증기선의 관광, 카지노에서 도박, 식사 등을 즐길 수 있다. 퀸스타운은 번지점프의 발상지로도 유명하다.

작은 마을이지만, 숙박 시설, 음식점, 선물 가게 등이 갖춰져 있다. 연간 약 13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온다. 퀸스타운에서 차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애로우타운(Arrowtown)은 골드러쉬 시대에 번성했던 도시이다. 아로우타운에서는 금 발견 당시의 역사적 자료의 전시 등을 볼 수 있다. 단순하고 소박한 아로우타운는 인기있는 관광지이기도하다.

퀸스타운을 거점으로 세계유산이기도 한 테 와히포우나무 - 남서 뉴질랜드,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의 밀포드 사운드로 향하는 관광객도 많다. 퀸스타운에서 밀포드 사운드는 자동차로 4시간 반, 세스나기로 40분 정도 소요된다.

4) 로토투아

오클랜드의 남동쪽 약 200km 지점, 로터루아호(湖)의 남서 끝에 위치하며, 온천이 많아 관광·휴양도시로서 발달했다. 특히 남쪽 교외의 대간헐천(大間

歇泉)은 유명하다. 예로부터 마오리족(族)의 거주지로 현재도 전통적인 취락을 남기고 있으며, 인구의 20% 이상이 마오리족이다. 근래에는 농업과 임업 중심지로 발전했으며, 1920년대부터 부근의 화산대지에 외래(外來) 침엽수의 식림사업이 진행되어, 1939년에 와이파에 뉴질랜드 최대의 제재소가 건설된 이래 목재가공업이 성하다.

5) 오클랜드

오클랜드(영어:Auckland, 마오리어:Tāmaki-makau-rau)는 인구 122만 3200명의 뉴질랜드의 최대의 도시로, 북섬 북단에 자리 잡고 있다. 오클랜드 반도 기부(基部)의 지협상(地峽狀)에 자리하고 있다. 오클랜드의 마오리 이름은 Tāmaki-makau-rau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다는 뜻이다. 예로부터 많은 부족이 탐내며 서로 침략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1840년부터 1865년까지 뉴질랜드의 수도였고, 현재도 상공업의 중심지이다. 공식 이름은 오클랜드 광역권 (영어:Auckland metropolitan area)이다. 좋은 항구가 있으며, 항공로도 사방으로 뻗어 있고, 웰링턴과 철도로 이어져 있다.

오클랜드 시는 실제적인 오클랜드의 중심이다. 뉴질랜드의 모든 도시는 여러 개의 작은 소도시로 구성되어 있는데(우리나라로 치면 "구"와 비슷한 개념. 서울시 내에 종로구가 있는 식), 그 중 주요지역으로는 다운타운이 있는 시내 중심(CBD)을 비롯, 쇼핑 상점이 많은 뉴마켓, 카페와 레스토랑이 많은 폰손비, 역사적인 건물과 고급 레스토랑이 있는 파넬 등이 있다.

오클랜드시에서 하버 브릿지를 통해 연결되는 노스 쇼어 시의 주요 지역으로는 타카푸나, 밀포드, 알바니 등이 있다. 타카푸나는 특히 한국인이 많은 곳 중 하나로, 타카푸나 비치가 있어 전망이 아름답고 비교적 중산층 이상급이 많이 있는 곳이다. 알바니는 최근 개발된 일종의 계획도시로, 큰 쇼핑몰이 있다.